신뢰로 여는 통합의 창 KBS

KBS 사보

2023년 3월 6일 월요일
Vol. 750

“변화와 혁신으로 압도적인 글로벌 공영미디어로 도약하겠습니다”

KBS가 올해로 공사 창립 50주년(3월 3일)을 맞아 지난 2일 KBS 신관 아트홀 로비에서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함께한 50년, 여러분의 KBS’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기념식은 시청자에 대한 감사와 공영미디어로서의 다짐을 공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남영진 KBS 이사장과 최경진 KBS 시청자위원장 및 KBS 전임 사장 등을 비롯해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기념식은 주요 내외빈 인사들의 축사에 이어 △공영방송 50년사 책자 발간 발표 △〈KBS를 빛낸 50인〉 발표 및 기념 트로피 전달 △〈2040 비전〉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의철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소중한 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위상에 맞는 압도적 영향력의 글로벌 공영미디어로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사 창립 50주년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김의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KBS가 공영방송으로 다시 태어나 맞이하는 50번째 생일 축하를 위해 참석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을 비롯 국회 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님, 김현 위원님, 김창룡 위원님, 그리고 전임 사장님들, 학회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927년 일제강점기 경성방송국으로 시작하여, 1947년 이후에는 문화공보부 산하 국영 중앙방송국이였던 KBS는 1972년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이후, 1973년 3월 3일 공영방송 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1976년에는 이곳 여의도 사옥으로 이전하며 여의도 방송사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공영방송 KBS는 〈KBS 뉴스9〉의 전신이 된 〈KBS 종합뉴스〉를 신설했으며, 〈전우〉, 〈전설의 고향〉과 같은 명작 드라마로 전 국민을 TV 앞으로 끌어모았습니다. 1983년 방송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방송의 막강한 위력을 보여주며, 공영방송의 시대적 사명을 다했습니다. 또,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8 서울 올림픽〉 당시 주관방송사로서 대형 이벤트 중계 기술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드는 한류의 시작은 2002년 방송된 드라마 〈겨울연가〉였고, 이후 〈태양의 후예〉, 〈연모〉와 같은 고품격 드라마는 한류의 상징이 되어 전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뮤직뱅크〉는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를 K-POP의 거대한 물결로 이끌며, K-콘텐츠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차마고도〉, 〈누들로드〉 등 명품 다큐멘터리를 비롯하여, KBS만이 시도할 수 있었던 〈용의 눈물〉, 〈불멸의 이순신〉 등의 다양한 대하드라마,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개그콘서트〉, 〈1박2일〉, 〈나훈아쇼〉와 같이 시대를 풍미하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들로 시청자들께 큰 감동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영광의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과분한 격려를 받으면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해 온 50년이었습니다. 이제 지천명을 맞은 2023년에도 KBS는 여전히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40년 전 컬러TV 도입과 함께 결정된 2,500원의 수신료는 글로벌 OTT의 맹폭 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하는 UHD 시대에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재원 구조 때문에 점점 상업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는 현재 KBS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앞으로 50년 후 더 나은 미래를 꿈꿔봅니다. 지금까지의 50년보다 더 진일보한 강력한 공영미디어 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 위상에 맞는 압도적 영향력의 글로벌 공영미디어로서 도약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와 정제되고 품격있는 콘텐츠로 공영미디어의 존재가치를 반드시 증명해 내겠습니다. 양극화되어가는 국민 여론을 통합하고, 국민의 절대적 신뢰를 받으며, 명확히 정의된 공영방송의 소중한 책무를 투명하고 공적인 재원 구조를 통해 제대로 수행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50년 동안 KBS를 응원하고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일

KBS 한국방송 사장 김의철

남영진 KBS 이사장, 김진표 국회의장, 김의철 KBS 사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최경진 KBS 시청자위원장(왼쪽부터)이 공사 창립 50주년 축하 기념 떡 커팅식을 하고 있다.

[1면에 이어서]

공사 창립 50주년 축사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공영방송 50주년,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의철 KBS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공영방송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KBS는 대한민국과 격동의 역사를 함께 써왔습니다.

〈태조 왕건〉 〈대조영〉 〈용의 눈물〉 〈불멸의 이순신〉. KBS의 대하사극은 반만년 우리 역사의 등뼈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겨레는 함께 공유하는 풍부한 겨레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냈습니다. 일요일마다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1983년 방송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보여준 불멸의 역작이었습니다. 우리 겨레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몇 달을 보냈고, 세계가 이 방송을 주목했습니다.

〈겨울연가〉는 우리 콘텐츠를 세계로 확산시킨 '한류'의 기폭제였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사를 〈겨울연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만큼 '한류'의 영향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뮤직뱅크〉를 비롯한 K-팝 프로그램은 드라마 중심의 뛰는 한류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공영방송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환위기 시절, 〈나라를 살립시다, 금을 모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방송되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 국민은 국난 앞에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공영방송 50년을 돌아볼 때, KBS 뉴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는 해마다 실시하는 각종 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받는 언론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50년, 공영방송 KBS가 걸어온 발자취는 찬란합니다. 앞으로 50년도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송의 길을 걸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미디어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포털, OTT. 미디어 플랫폼도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미디어 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물길을 내는 공영방송.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지키는 공영방송.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공영방송. 이 모두가 국민이 기대하는 공영방송의 미래입니다.

공영방송이 이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도 세심히 살피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언론보도는 역사의 초고(草稿)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경쟁상대는 세계 초일류국가들입니다. 세계 초일류국가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최대로 발휘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 통합력을 높이는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권은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개헌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영방송 50주년을 축하드리며, KBS가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크게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일
국회의장 김진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먼저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이한 KBS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기념식은 1972년 '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되며 KBS가 국영에서 공영방송으로 개편된 5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과 열정의 결실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의 순간순간에 공영방송 KBS가 늘 함께 해 왔습니다.

경제·사회 발전의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국민적 화합을 유도하며 문화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영방송은 현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유료방송 매체와의 경쟁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출 확대로 미디어 시장에서의 생존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시청행태의 변화로 인해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수많은 상업 콘텐츠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는 현실 속에서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은 오히려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재난방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가장 신뢰받는 방송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KBS가 새로운 50년, 대한민국 공영방송 100년을 준비하는 국민을 위한 국가대표 방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과,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공영방송 50주년 〈2040 비전〉 발표

미래 온라인 공간에서 공공서비스 확대
법제도 현대화·콘텐츠 활성화·지역거점 단계적 재편… '3Re 전략'

KBS가 공사 창립 50주년을 맞아 〈2040 비전〉을 공개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의철 사장은 '공영방송 50주년 기념식'에서 〈2040 비전〉 발표를 통해 "앞으로 인터넷이 더욱 지배적인 소통 공간이 되더라도 공영미디어의 역할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며 "KBS는 상업 미디어가 추구하기 어려운 보편성·독립성·다양성의 가치를 토대로 ▲민주주의 사회 소통의 근간이 되는 동시에 ▲미디어 환경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새롭고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한국 문화를 굳건하게 지키는 보루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KBS는 '3Re 전략'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①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낡은 법과 규제를 현대화(Re-vising)하고 ② 온라인 중심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도록 콘텐츠 제작 방향을 정립(Re-vitalizing)하며 ③ KBS의 지역 거점을 단계적으로 재편(Re-structuring)해 지역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① KBS 법제도 현대화(Re-vising)

먼저 KBS를 규율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KBS를 둘러싼 방송법 조항이 1987년에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디어 이용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데도,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법에 들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김의철 사장은 "공영미디어 KBS가 지켜야 할 공적 책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의 범위,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의 관계가 법에 명확히 포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1980년대의 관점에서 유지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나 자산 활용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번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돼 온 수신료 승인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② 제작방식 재정립을 통한 콘텐츠 활성화(Re-vitalizing)

콘텐츠 제작방식도 달라질 방침이다. 방송 편성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채워가던 종전의 '채널 중심' 제작방식으로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관심과 정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KBS는 '채널 중심' 제작방식이 아닌 '장르와 타깃 중심' 제작방식으로 내부 시스템을 전환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장르와 타깃 중심' 제작방식을 통해 ▲상업 미디어가 관심 갖지 않는 우리 사회의 실제 이야기를 전하고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담론을 이끌며 ▲재난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넓고 다양하게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변화된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실현해 KBS의 멀티플랫폼 도달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③ KBS 지역거점 단계적 재편(Re-structuring)

지역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KBS의 지역 네트워크에 변화가 시작된다. KBS의 지역방송은 현재 9개 방송총국과 9개 방송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사장은 KBS의 지역방송 체제를 두고 그동안 논란과 갈등이 계속됐던 원인에 대해 "행정구역의 변화와 도시의 발달, 생활 여건의 변화를 KBS가 그때그때 반영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해외 공영미디어들과 마찬가지로 행정구역과 연계한 지역방송 거점화를 기반으로 지방자치에서 공영미디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공영방송 50주년 50년사 발간

〈KBS 50 국민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다〉
KBS 50년 변천사와 공적 책무, 국민이 뽑은 최고 프로그램 등 수록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걸어온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총정리한 〈KBS 50 국민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다〉를 발간했다.

〈KBS 50 국민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다〉에는 1973년 3월 공사 창립과 함께 공영방송으로 새 역사를 시작한 이후 현대사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해온 KBS 50년의 변천사와 주요 프로그램, 공적 책무, 미래 전망, 역대 사장 회고, 숫자와 연표로 본 KBS 50년 등이 수록되어 있다.

▲1장 'KBS 50 국민과 함께'에서는 '공영방송 KBS 50년 최고의 프로그램' 선정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고 공사 창립 이후 50년간 주요 변화와 발전상, 프로그램 등을 사진으로 정리했다.

KBS가 1월 국민패널을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79명에게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영방송 KBS 50년 최고의 프로그램'에서 보도 부문 1위는 〈KBS 뉴스9〉, 시사교양 부문 1위는 〈인간극장〉, 드라마 부문 1위는 〈태양의 후예〉, 예능 부문 1위는 〈전국노래자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장 'KBS 50 공영방송 역사를 조명하며'에서는 공사 KBS 50년의 역사를 종합 정리했고, ▲3장 'KBS 50 공적 책무를 기록하며'에는 편성, 보도 등 11개 분야별로 수행한 공적 책무가 250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담겼다. ▲4장 'KBS 50 지역과 함께'에서는 지역총국의 변천사와 그동안 서비스한 지역 프로그램을 ▲5장 'KBS 50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에서는 KBS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미래를 전망했다.

지난 50년간 KBS 사장으로 재임한 사람은 모두 17명. 이 가운데 생존해 있는 11명 중 8명의 회고를 최초로 사사(社史)에 수록했는데, 역대 사장들의 회고는 피상적으로 알려지거나 혹은 알 수 없었던 당시의 KBS 최고경영진 주변 상황들을 간략하게나마 기록으로 남겼다는 의의를 가진다.

1973년 3월 공사 창립 이후 KBS는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기록자로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다. 공사 창립 이후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채 정부 홍보 역할을 벗어날 수 없었던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KBS는 방송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시청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왔다.

KBS 50년사를 담은 〈KBS 50 국민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다〉 책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방송 유관기관, 방송 관련학과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디지털 파일은 공영미디어연구소 홈페이지 (https://office.kbs.co.kr/bri/)의 간행물-단행본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이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 설문조사 내역

구분	조사개요
조사 내용	보도, 시사·교양, 예능, 드라마 4개 분야별 10개의 프로그램을 엄선해 그 중 최고의 프로그램 1~3위 선정
조사 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방법	[KBS국민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 (Internet Panel Survey)
조사 기간	2023년 1월 20일(금) ~ 1월 24일(화)
표본추출 방법	주민등록통계(2022년 12월) 기준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본 크기	유효표본 1,079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0%p

‘KBS를 빛낸 50인’ 선정

KBS가 지난 50년간 KBS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기쁨과 감동, 즐거움을 선사한 ‘KBS를 빛낸 50인’을 선정했다.

공영방송 50주년을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이정표이자 방송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영미디어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삼아 ‘KBS를 빛낸 50인’의 인물을 선정함으로써 공영방송 KBS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지켜보고 지지해준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KBS를 빛낸 50인’에는 TV·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연기자, 가수, 개그맨, 성우, 스포츠 스타, 전문가 패널, 문화예술인) 및 진행자(MC, 아나운서, 앵커), 제작자(PD, 작가, 제작 스태프), 기타 공헌자 등 다양한 직군의 인물들이 총 망라됐으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KBS를 빛낸 50인

(가나다순, 순위 없음)

BTS, 강하늘, 강형욱, 강호동, 고두심, 공효진, 김강섭, 김동건, 김병만, 김수현, 김숙, 김신영, 김영철, 김은숙, 김종민, 김혜수, 김혜자, 나문희, 나영석, 나훈아, 노희경, 문세윤, 박명수, 배용준, 소녀시대, 손범수, 송은이, 송중기, 송해, 송혜교, 신구, 신동엽, 아이유, 안국정, 유동근, 유재석, 윤석호, 이경규, 이금희, 이병헌, 이순재, 이영자, 임성훈, 전현무, 조용필, 최경영, 최불암, 최수종, 허참, 황수경

이 가운데 아나운서 김동건, 배우 최불암, 배우 유동근, 방송인 김신영, 윤석호 PD가 3월 2일 열린 ‘공영방송 50주년 기념식’에 50인을 대표로 참석해 감사패를 받았다.

‘KBS를 빛낸 50인’ 선정은 사내외 전문가그룹 100명과 인구통계학적 분포에 따라 성별, 연령별로 구성된 KBS 국민패널 1,800여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1차로 100명의 후보군을 선정했고, 1월 9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에 걸쳐 ‘KBS 공영방송 50주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투표를 통해 7만여 명의 시청자들이 참여해 최종 50인을 선정했다. 또한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추천을 받아 미디어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KBS를 빛낸 50인 선정자문위원회에서 최종 50인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거쳐 후보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했다. ‘KBS를 빛낸 50인’은 ‘공영방송 50주년 홈페이지(https://kbs50.kb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수상자 5인 소감발표

아나운서 김동건

올해 아나운서가 된지 60년,
KBS에서 근무한지 50년이라
감개무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배우 최불암

공사창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이 KBS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50년 역사 속에 몇 천명의
KBS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왔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배우 유동근

존경하는 김동건, 최불암 선배님과
영예의 수상을 안아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KBS 제작진으로부터 많은
연락부탁드리고, 백년대계를 누리는
KBS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인 김신영

앞으로 KBS를 빛내라는 뜻으로 상을
주셨다 생각하고, 공사창립 100주년 때
〈전국노래자랑〉의 왕할머니가 되어
함께하고 싶습니다. 송해 선배님과
공동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호 PD

〈TV문학관〉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KBS에 들어와 제작한
〈겨울연가〉가 한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명가 KBS. 50주년 이후
드라마 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통합 홈페이지 확대 개편

KBS가 공사 창립 50주년과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 40주년을 기념해 〈코리안 디아스포라〉 통합 홈페이지(diaspora.kbs.co.kr)를 3월 3일 확대 개편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KBS가 지난 2019년 '이산가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릴 글로벌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기 위해 이산가족과 한국전쟁 관련 현대사 스토리를 담아 만든 홈페이지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코리안 디아스포라〉 통합 홈페이지는 '세계로 흩어진 한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플랫폼'을 모토로, 다양한 KBS 내·외부 사이트(아침마당, 6시 내고향, 동네 한 바퀴, 뮤직뱅크, 한민족방송 등 디아스포라 관련 프로그램 및 연내 신설 예정인 재외동포청 등 단체 홈페이지 링크)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KBS 아카이브의 관련 영상들을 세분화해서 ① 이산가족 생방송(138일의 기록/ 그 이후) ② 한국전쟁·실향민(최태성의 한국전쟁/ 영상으로 보는 한국전쟁/ 한국전쟁 실향민 이야기) ③ 탈북민·북한동포 ④ 고려인·재중동포 ⑤ 해외교포 ⑥ 대한민국 바로알기 등을 6가지 섹션별로 배치해 가독성을 높였다. 정중앙 메인화면에 프로모션 페이지로 구성한 '디아스포라 스페셜 나우'에서는 2023년 방송될 관련 프로그램의 예고편과 다시보기 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시청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특히 이산가족 디아스포라 섹션의 '138일의 기록'에서는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일별 하이라이트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는 한편, 오는 6월 30일에는 이산가족 찾기 40주년을 맞아 전 편의 영문 자막 제작을 완료해 공개할 예정이다.

KBS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통합 홈페이지 확대 개편을 통해 KBS가 국민과 함께해 온 반세기를 돌아보는 동시에, 이산가족이 헤어진 가족을 만난 것과 같이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민족에게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 중심 미디어로서 KBS의 공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 : 해외에서 한민족을 지칭하는 영어 코리안(Korean)과 모국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된 민족 구성원을 지칭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의 합성어 (출처: 국립통일교육원)

대형 산불 위험 큰 3월, 재난방송 대비는 어떻게?

지난해 전국에서 난 산불은 총 740건. 이 가운데 52%는 봄에 났다. 특히 피해 면적이 100ha가 넘는 대형 산불은 이 시기에 집중됐다. 1986년 산불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울진·삼척 산불도 1년 전 이맘때 발생했다. 봄철 대형 산불에 대비한 재난방송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원종진 KBS 재난미디어센터장에게 들어봤다.

원종진
KBS 재난미디어센터장

Q 지난해 산불이 유독 많았다. 올해는 어떻게 예측하나?

지난해는 겨울에서 봄까지 이어진 긴 가뭄으로 산불이 잦았다. 그 전 해보다 2.1배 많았다. 2월 15일 영덕 산불을 시작으로 6월 5일 밀양 산불이 꺼질 때까지 본사와 지역에서 뉴스특보를 한 대형 산불이 10건이다.

특히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산림 16,302ha를 태운 울진·삼척 산불은 초대형 산불이었다. 울진군은 단일 시군으로는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KBS는 정규뉴스를 제외하고 뉴스특보만 1,200분 가량 했다.

올해는 겨울에 눈이 제법 내렸다. 대형 산불 발생이 지난해보다 늦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봄이 되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바람도 강해진다.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가 제일 위험하다. 남고북저(南高北低) 기압 배치로 강한 편서풍이 부는데, 불을 부르는 바람이라고 해서 화풍(火風)으로 불리는 '양간지풍'이 부는 시기다.

산림청에는 '벚꽃이 피면 바빠지고 아카시아꽃이 피면 한숨 돌린다'라는 말이 있다. 식목일 전후 벚꽃 필 때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아카시아꽃 피는 5월이면 녹음이 우거져 산불이 잦아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말도 옛말이 됐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요즘은 아카시아꽃이 필 때도 바쁘다고 한다. 지난해 6월 대형 산불 기록을 새로 쓴 밀양 산불이 그 예다.

Q 대형 산불 재난방송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올해 산불 재난방송의 목표는 「30+30」 이다. 산림청이 대형 산불 대응 단계인 '산불 3단계'를 발령하면 30분 이내에 뉴스특보를 시작해 30분 이상 지속한다는 의지의 피력이다.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제적으로 뉴스특보를 해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재난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 되는 재난방송을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2월 8일 보도본부 산불 재난방송 대비 TF 운영을 시작했다. 회의를 통해 산불 재난방송의 형식과 내용, 절차 등을 담은 〈2023년 산불 재난방송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8월 TF를 운영해 〈2022년 태풍 대비 재난방송 계획〉을 만들어 9월 태풍 힌남노 연속 재난방송에 대비한 경험을 살려 산불 재난방송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① 재난미디어센터 중심으로 정확한 산불 예측·모니터·공유 ② 산불 단계별 기사와 큐시트 등 재난방송 콘텐츠 자동 생산 ③ 산불 단계별 본사와 지역방송총국 선제적 대응의 체계화 등이다.

2월 17일 보도본부장 주재로 열린 지역총국 보도국장 회의에서 〈2023년 산불 재난방송 계획〉을 공유했고, 23일 전사에 시행했다. 25일 본사와 지역방송총국(대구, 춘천)이 참여한 재난방송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3월 14일에는 지역방송국 재난방송 담당 기자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앞으로 산불 재난방송 계획을 바탕으로 모의훈련과 실무자 교육을 계속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Q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KBS 산불 재난방송이 지향하는 것은?

KBS 재난방송은 정확성, 신속성, 전문성, 유용성 원칙을 지향한다. 단순히 '빨리, 많이'하는 재난방송만으로는 차별성이 없다. 주관방송사의 재난방송은 형식과 내용 모든 측면에서 달라야 한다. 재난방송의 목적인 피해 최소화, 혼란 방지, 피해복구 촉진에 충실해야 한다.

재난 CCTV, 산불 상황도, GIS 시스템, 터치스크린, 터치미러링, 제보 TV, 재난방송전문위원, 재난통신원 등 KBS가 구축한 인프라와 리소스를 활용해 재난방송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산불 재난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재난은 막을 수 없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재난방송도 마찬가지다. 산불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뛰는 지역방송총국 구성원들이 제일 고생한다. 본격적인 산불 발생 시기에 앞서 총국 차원에서 취재진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산불 피해가 가장 적었던 해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8K 초고화질 영상으로 만나는 한반도의 자연사

히든 어스

HIDDEN EARTH 한반도 30억년

KBS 대기획 〈히든 어스 – 한반도 30억년〉(이하 히든 어스)은 무심코 지나친 돌멩이 하나에도 한반도 지질 30억 년의 비밀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조명하기 위해, 시생대부터 신생대까지 한반도에 숨겨진 30억 년의 시간을 100곳 이상의 촬영지를 돌아다니며 담아낸 자연사 다큐멘터리다.

〈히든 어스〉는 총 5부작으로, 3월 2일 첫 방송된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편에서는 인천 옹진군에 위치한 대이작도 탐사를 통해 원생대의 지질 유산이 남아있는 모습을 조명하고, 2부 〈적도의 바다에서(3월 3일 방송)〉 편에서는 태백 산지에서 발견된 삼엽층 화석을 토대로 고생대 대륙의 이동과 강원도 석회암 지대 지질의 신비로움을 다뤘다.

우경식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30억년 한반도 땅의 비밀을 소개하는 가이드 겸 프리젠터를 맡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8K 초고화질 영상을 통해 바위의 질감은 더 선명하게, 광활한 풍경은 더 입체적으로 담아내며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3월 9일 방송되는 3부 〈공룡의 발걸음으로〉 편에서는 국내에서 발견된 화석들을 분석해 당시 환경과 공룡의 생활사를 입체적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방송 예정일	제목	내용
3월 16일(목)	4부 〈수월봉, 화산 비 내리던 밤〉	제주 수월봉 형성 과정을 통해 신생대 수성 화산 폭발 당시의 지질 형성 과정을 조명해 본다.
3월 23일(목)	5부 〈서울의 탄생〉	북한산, 관악산 등 서울 곳곳에 산재돼 있는 화강암 분석을 통해 서울의 형성 과정을 실감나게 재현해 본다.

아트 버라이어티 쇼

NO MONEY NO ART

열정 넘치는 신진 미술 작가들의 등용문이 되어 줄 무대가 탄생한다.

3월 23일 첫 방송 되는 〈노 머니 노 아트〉는 매회 신진 작가들이 출연해 '라이브 드로잉 쇼'를 통해 자신들의 미술 작품들을 소개하면 30인의 아트 콜렉터(갤러리 관계자 및 일반인으로 구성)들이 작가의 경매에 참여할지를 투표로 결정한 뒤, 최종 선정된 작가의 작품을 경매에 올려 실제로 판매하는 리얼 경매 쇼 프로그램이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서 무스키아(전현무+장 미쉘 바스키아)라는 부캐로 남다른 그림 실력을 선보인 방송인 전현무가 메인 MC를 맡고,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 배우 봉태규, 개그우먼 김민경, 댄서 모니카가 패널로 출연해 숨겨진 작가들의 재능을 찾아내고, 이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큐레이터 역할을 담당한다.

제작진은 "작가들에게 직접 듣는 작품 이야기부터 생생한 라이브 드로잉과 경매 쇼를 통해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미술 작품 경매 과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본방사수를 당부했다.

▶ 첫 방송 3월 23일 /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KBS2

〈걸어서 환장 속으로〉… 가족여행이라는 환상 혹은 환장

정덕현
문화평론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던가. 찰리 채플린이 이야기한 이 명언을 여행 예능을 표방한 〈걸어서 환장 속으로〉에 빗대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족여행은 멀리서 보면 환상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환장이라고.

사실 여행 자체가 그렇다. 여행은 떠나는 상상을 하고 계획을 짜고 공항에 가는 +6그 길까지는 설렘을 주지만, 실제 공항에서 탑승권을 받고 짐을 부치고 출국심사를 한 후 비행기에 올라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피로한 현실'이라는 걸 실감하게 한다. 또 비행기에 올라 길게는 12시간 가까이 좁은 공간에서 버텨내다 보면 편안하게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집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 하물며 피로함에 예민해지기 마련인 이 상황에 혼자가 아닌 가족이 함께라면 어떨까. 〈걸어서 환장 속으로〉는 바로 이 지점을 기획 포인트로 삼았다. 그래서 파리 여행을 떠나는 김승현네 가족이나 대만 여행을 떠나는 서동주네 가족의 면면을 보고 있으면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저런 여행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그건 대부분의 여행 예능들이 전자의 로망을 화력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선택이다. 여행에서 끝없이 부딪치는 의견 충돌과 갈등 그래서 생겨나는 '환장의 상황들'을 이 여행 예능은 화력으로 삼고 있으니 말이다.

김승현네 가족의 파리 여행은 며느리인 장정윤이 시댁 식구들(그것도 시부모만이 아닌 시고모, 시삼촌까지 포함된)의 갖가지 다른 취향과 욕구를 들어줘야 하는 데서 '환장할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서동주네 가족 삼대가 떠난 대만 여행에서는 너무 다른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딸이 힘겨워하는 상황들이 생겨났다. 이런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새로 투입된 나태주네 가족과 고은아네 가족 여행에서도 똑같이 적용됐다. 나태주가 여섯 고모를 데리고 떠난 태국 효도 여행이나, 남다른 텐션을 가진 고은아네 가족이 함께 떠난 라오스 여행에서도 프로그램은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에 집중했다.

물론 그 갈등 속에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웃어넘길 수 있고 때로는 뭉클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그토록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김승현네 가족여행에서는 김승현이 바랐던 것처럼 자신의 딸이 새엄마인 장정윤과 가까워지는 순간들이 담겨졌고, 서동주네 가족에서도 암투병하는 엄마와 투닥대는 할머니를 통해서는 남다른 세 모녀의 정 같은 게 느껴졌다. 무뚝뚝하게만 보였던 고은아의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최고로 좋았다"고 속내를 털어놓는 장면에서 놀라워하는 고은아의 모습이 뭉클하게 다가오고, 통제 불가지만 귀여운 여섯 고모들이 나태주에게 보이는 애정이 마치 엄마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등장한다. 가족여행의 현실이 주는 환장은 이 예능의 웃음을 만드는 화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드라마 같은 순간들이 존재한다. 〈걸어서 환장 속으로〉가 여타의 여행 예능들과 확연히 달라지는 차별점이다.

물론 지나치게 '환장'에 집착하다보니 갈등을 유독 부각시키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마치 분노를 유발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면은 아쉬운 지점이다. 이것은 환장할 상황들이 벌어지는 가족여행일지라도 그 속에서 얻게 되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나, 비록 여행이 피로하지만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색다른 즐거움 같은 것들마저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도 여행도 본래 현실이 되면 불편해지고 갈등도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나고 되돌아보면 그리워지고 그때가 행복했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역시 가족이고 여행이 아닐까. 가까이서 보는 환장이 주는 재미와 더불어 한발 뒤로 물러나 되돌아보는 환상의 관점 또한 찾아주길 바란다.

공사 창립 50주년 기념… 한국전력공사에 감사패 수여

KBS가 공사 창립 50주년을 맞아 수신료 위탁징수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3월 2일 본사 임원회의실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는 김의철 KBS 사장과 이경숙 한전 전력솔루션본부장 등 양사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의철 사장은 "분리징수 이슈 등 수신료 제도에 대한 외부 압력이 공사와 한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1994년 10월부터 KBS와 협력하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수탁운영 해오고 있다.

KBS TS-D UHD 스튜디오 개소식 열려

KBS TS-D UHD 스튜디오가 2월 15일 문을 열었다.

별관에 위치한 TS-D 공개홀은 KBS홀, 신관(TS-15) 공개홀과 함께 KBS를 대표하는 공개홀로 〈가요무대〉, 〈누가 누가잘하나〉, 〈노래가 좋아〉,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 예능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연말 시상식 및 주요 기념식 등이 제작되는 스튜디오다. 이번 UHD 전환 공사를 통해 UHD 카메라 8대를 기본으로 16개 채널까지 녹화가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장르의 고화질 프로그램 제작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황금 해설위원 라인업 '박찬호-박용택-김태균-윤석민-김구라'

KBS가 2023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계를 위한 '황금 해설위원 라인업'을 완성했다.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의 위엄을 자랑하는 박찬호와 'LG 트윈스의 전설' 박용택이 이광용 캐스터와 함께 현장 중계를 맡아 3월 9일 낮 12시 WBC 첫 경기인 호주전을 시작으로 10일 일본, 12일 체코, 13일 중국과의 예선 경기에 이어 8강, 준결승, 결승 경기를 중계방송할 예정이다.

특히 호주전, 일본전, 8강전 때는 경기 시작 전 다양한 정보를 전할 'WBC 프리쇼'를 방송하는데 '야구 마니아'로 알려진 방송인 김구라와 2009년 WBC 준우승의 주역인 김태균, 윤석민이 등판해 시청자들을 세계 최대 야구 축제로 안내한다. 경기 중계 외에도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특집 〈더 캠프〉(3월 1일~3일, 6일~8일, 저녁 7:40~7:50 / 2TV)를 통해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전설의 선수와 감독 등 야구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다.

새 월화 드라마

자신만의 '오아시스'를 찾는 세 남녀의 사랑과 인생 이야기

오아시스

새 월화 드라마 〈오아시스〉는 1980~90년대 격변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든 세 명의 청춘들이 펼쳐내는 멜로 드라마다.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 이두학(장동윤 분)과 유복한 집안의 무남독녀로 태어났으나 몰락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는 오정신(설인아 분),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철웅(추영우 분). 세 남녀의 우정과 삼각 로맨스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

여기에 베테랑 배우 전노민, 김명수와 탄탄한 연기 내공을 지닌 강경헌, 소희정 등 명품 배우들의 입체적인 연기 또한 극의 재미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또한 극의 시대 배경은 기성세대들에겐 촉촉한 추억을, MZ세대들에게는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는 〈기황후〉의 한희 PD가 연출을, 〈다모〉와 〈주몽〉을 집필했던 정형수 작가가 집필을 맡은 작품으로, 힘들었지만 평화롭던 유년기를 지나 엄청난 사건을 겪으며 순수했던 우정과 사랑이 뒤흔들리고 격정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세 남녀의 파란만장 이야기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시청자들의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매주 월~화요일 밤 9시 50분 KBS2

새 주말 드라마

'진짜'를 둘러싼 미혼모와 비혼남의 가짜 계약 로맨스

진짜가 나타났다!

3월 25일 첫 방송 예정인 새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연출 한준서, 극본 조정주)는 배 속 아기 '진짜'를 둘러싼 미혼모 오연두와 비혼남 공태경의 가짜 계약 결혼 이야기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통해 '애벤져스'로 거듭나는 가족들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극 중 백진희는 인터넷 강의계의 슈퍼 루키이자 매력적인 외모에 털털한 성격을 지닌 국어영역 전문 강사 오연두 역을, 안재현은 산부인과 난임 클리닉 전문의 공태경 역을 맡아 두 사람이 배 속 아기 '진짜'로 인해 겪게 되는 감정변화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또한 차주영은 공태경의 첫사랑인 장세진 역을, 정의제는 오연두의 전 남자친구이자 투자전문가 김준하 역으로 나서 향후 펼쳐질 주연 4인방의 찰떡 케미 또한 기대케 하고 있다.

〈경성스캔들〉, 〈강적들〉,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의 한준서 PD가 연출을, 〈공주의 남자〉, 〈너도 인간이니?〉, 〈파트너〉의 조정주 작가가 집필을 맡은 〈진짜가 나타났다!〉는 '진짜'의 등장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세대 시청층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전망이다.

▶ 첫 방송 3월 25일 / 매주 토~일요일 저녁 8시 5분 KBS2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김의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113, 2821 / kbssabo@kbs.co.kr
편집인 최영철 **취재** 안현기 기현정 최재영 김희경 **사진** 이민규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김채원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